

##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이소정\*

고령화 사회에 내재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의 상실된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통합을 기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보다 노인중심적인 관점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참여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참여 유형 결정요인을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은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으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참여는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원,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핵심단어 :** 노인의 사회참여, 사회참여 유형, 사회참여 결정요인

### I. 서론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노인집단의 약 1/3은(32.5%) 노후의 시간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했다(정경희 외, 2005). 이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과 더불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은퇴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박탈된다는 현실이, 그 보다 더 깊숙한 곳에는 생산의 영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즉, 생산력의 문제가 가장 지배적인 가치규범으로 자리잡은 산업사회에서 생산력이 저하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무기력”, “쓸모없음”과 연결되며 이러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snowvill@kihasa.re.kr

외와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 노인을 제외한 기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노쇠하다’, ‘독단적이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는 사실은 생산성이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오늘날의 사회구조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연결됨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배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단위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지위하락 및 헤게모니 상실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 고령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한 ‘무기력한’ 존재인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과 이에 대처할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것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불과 20여년 앞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정책대안은 빈곤하고 취약계층에 속한 소수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노인인구를 사회 시스템 속으로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곧 사회 속에서 고립·단절되어 있는 노인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노인 사회참여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사회참여율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단체’ 중심의 조직적인 사회참여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경로당 활동 등에 제한된 사회참여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단체 활동의 경우에도, 사회단체 종류별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7.9%가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사교단체에는 35.5%, 운동단체 3.9%, 정치단체 2.1%, 문화활동단체 0.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단체 활동의 대부분은 종교단체와 사교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지금까지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동향 및 정책방향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다수의 기존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일자리(취업), 자원봉사, 친목모임, 종교,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참여’라는 큰 틀 속에서 각각의 사회참여 유형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첫째, 기존 연구경향이 노인 사회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공감에 근거하기보다 주로 사회참여의 각 유형에 대한 당위성(예컨대, 노인 취업의 당위성,

노인 자원봉사의 당위성 등)을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참여의 각 영역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욕구에 따라 다수의 사회참여 영역을 포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참여”가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참여의 지점들(가령, 취업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이 교차적으로 모여 형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의 요소들을 분석에 포괄시켜 노인들의 실제 사회참여 양상을 유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참여의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그와 관련된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상이한 자원 등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적인 사회참여 양상을 밝힘으로써 향후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 1. 선행연구 검토

노인의 사회참여는 그동안 주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함께 다루어졌으며, 두 개념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여가활동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논의 역시 지극히 제한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해 윤종주(1994). 는 노인이 직업이나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개인적 차원은 물론, 복수의 노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권익을 추구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노인운동을 전개하는 집단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사회참여를 사회활동, 사회통합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혹은 각각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박정은 외, 1994).

한편, 조추용(2003). 은 노인의 특성상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여가활동은 자유롭고 오락이 포함된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참여는 생산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은 매우 유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노인의 사회참여는 사회적·경제적·조직적 성격이 포괄되는 보다 광범한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에는 경제활동, 교육 활동, 운동활동, 단체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노인권익신장 운동 등이 포괄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고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련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 역시 다소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직업, 교육,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참여 각 분야에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인의 여가를 비롯한 직업, 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모두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포함될 변수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다.

### 1) 성별

노인들의 생활은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두 가지 사실에서 기인한다. 먼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 다른 하나는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석, 2003).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의 차이는 경제활동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성 노인들은 사회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전문성취형 분야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별다른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단순경제형 직종을 선호한다(김동배 외, 2004). 또한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직업을 원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사회참여의 성별 차이는 사회참여의 범위가 넓은 만큼, 그 방향성이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의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낮은 반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남성에게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오영희 외, 2005). 노인의 교육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역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2004). 노인의 사회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족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고, 남성은 봉사활동, 자아계발 등 인생을 즐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양순미 외, 2004).

## 2) 연령

노인의 연령은 건강, 경제 등 노인의 삶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연령을 주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취업 등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경희, 2004).

하지만, 연령이 노인의 건강이나 경제, 사회참여와 단순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집단의 전체 연령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이미 연령에 따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노인을 전기(young-old)와 후기(old-old)로 구분하고 있다(이인정, 1999; 김미령, 2006; Neugarten, 1968). 후기노인의 경우 전기노인에 비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빈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30년 이상의 연령차는 노인집단 내 신체적·정신적 문제 및 장애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일제강점기, 전쟁 등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연령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기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유년기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가치관 및 행동방식은 매우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정 경험을 공유한 세대별 접근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인의 직업, 소득, 건강, 가치관, 생활방식 등 다양한 요인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구대상이 노인일 경우 교육에 의한 영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 누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수준은 노인 관련 연구에서 더욱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며,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직업, 평생교육,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및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박주문, 1999; 오영희 외, 2005; 정경희 외, 2005).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수준을 연령과 함께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수준은 노인의 취업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높이며, 실제 취업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2004). 또한, 교육수준은 성별, 연령, 종교, 가족형태 등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7).

#### 4) 거주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도시와 농촌은 서로 다른 경제·사회·문화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차별성은 두 지역의 노인들의 삶에도 많은 차이를 낳고 있다. 농촌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의료 및 여가시설과 관련된 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이다. 산업의 특성상 농촌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도시에 비해 높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농촌의 다른 조건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에서는 농어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에 비해 사회단체, 교육, 자원봉사 등 일반적인 사회활동 분야의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오영희 외, 2005; 정경희 외, 2005). 또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지만, 사회적 관계유형은 고립적인 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숙, 2000). 반대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 안녕감이 높다고 밝힌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김태현 외, 1999).

#### 5) 건강상태

노년기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기능 및 사회적 능력이 감퇴하는 시기이다. 노인의 건강쇠퇴는 독립적인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는 노인들의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권승·황규선, 2004).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노인의 사회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신체기능의 제약 정도 및 특성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척도는 병리적 현상에 초점을 두고 만성질환의 종류와 수를 확인하는 것과, 기능 수준에 기초하여 일상생활능력 등 기능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상태는 많은 연구에서 주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만성질환의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김주현·한경혜, 2001; 김태현 외, 1999; 박경숙, 2000).

## 6) 경제수준

경제수준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분야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인의 경제수준은 경제활동을 제외한 종교, 교육,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좀 더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수준은 노인들이 좀 더 의미 있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도 노인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및 종교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정경희 외, 2005). 또 노인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통해 얻는 자아존중감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현·한경혜, 2001).

반면 노인의 경제수준은 직업 등 경제활동 분야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은 직업을 위해 무리할 이유가 없지만,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한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노인의 69.9%, 미취업노인의 56.8%가 '돈이 필요해서'라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또 경제적 자원이 낮은 수준에 있는 미취업 노인일수록 재취업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노인의 사회참여 분야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리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 7) 노후준비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 여부는 노년기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될 수 있다. 연금, 보험 등을 통한 적절한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에 필수적이다. 노후준비가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경제수준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노후준비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는 아직 경제활동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이현기(2001)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 고학력 집단의 재취업률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고학력 노인들의 노후준비가 재취업 욕구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8) 최장기 직업

노인의 과거 최장기 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고, 공식집단과의 연계

등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노인의 현 직업이 사회참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과거 최장기 직업을 살피는 것은 노인의 사회계층을 파악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간 종사하였던 직업에 따라 노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의 성격과 사회참여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전문직에 종사하던 노인과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던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관계 및 친밀도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박경숙(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최장기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인 경우 고립형의 사회적 관계를 갖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과거 직업은 평생교육 욕구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했던 노인들의 교육 욕구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2004).

### 9)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

사회복지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 및 복지는 주로 가족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는 노인의 생활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김두섭 외, 2000; 김정석, 2003). 가족 및 가구형태에 관한 관심은 주로 가족에 의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심은 현실적으로 배우자유무에 따른 혼인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자녀동거 등 세대관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혼인상태는 주로 노인 개인의 배우자유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정서적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태현 외, 1998).

세대관계는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등 세대간 동거여부와 자녀의 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기능적·정서적 지원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동거 여부 및 자녀의 수에 관심을 가져왔다(김경혜, 1998; 정경희, 2002). 그러나 노인의 세대관계 및 거주유형은 부양책임, 정서적 갈등, 개인적인 선호와 연관되어 복잡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정경희(2002)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자녀동거여부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결혼상태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으며, 경제적 독립성과 개인적 선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세대관계는 결혼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분석자료 및 조작적 정의

이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직업 및 경제활동을 포함한 각종 단체활동, 교육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 종교, 문화, 운동, 사교, 정치, 교육, 자원봉사, 경로당 등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9가지 영역을 노인의 사회참여 분야로 선정하였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활동의 참여경험이나 단체 가입여부에 관한 것으로 모두 ‘참여’, 또는 ‘불참’으로 재정리하였다. 교육(평생교육)과 자원봉사 등 일부 비정기적인 활동의 경우 과거 경험까지 ‘참여’로 해석하였으며, 직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례만 ‘참여’로 분류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를 고려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학력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교육년수로 변환하였다. 동부와 읍·면부로 구성된 거주지는 동부를 도시지역, 읍·면부를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가구소득, 용돈, 노후준비 여부를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였으며, 용돈 역시 노인 개인의 월평균 용돈을 사용하였다. 노후준비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노인의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는 혼인상태와 세대관계를 함께 고려하였다. 혼인상태 및 세대관계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지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혼인상태는 배우자유무를 파악하였으며, 세대관계는 자녀동거 유무를 통해 확인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활동이 필요한 사회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객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건강상태와 관련된 주관적 문항들을 배제하였다. 또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등을 묻는 기본적 일상수행능력(ADL) 보다,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수단적 일상수행능력(IADL)이 노인의 사회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수단적 일상수행능력(IADL)을 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최장기 직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 문항은 세부직업분류표에 의해 분류되었으며, 이를 다시 전문직, 사무직, 생산노무직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조작적 정의

| 구 분                   | 변 수    | 조작적 정의                        |                     |
|-----------------------|--------|-------------------------------|---------------------|
| 사회참여 분야 <sup>1)</sup> | 직 업    | 직업유무: 없음 = 0, 있음 = 1          |                     |
|                       | 종 교    | 종교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                     |
|                       | 문 화    | 문화활동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                     |
|                       | 운 동    | 운동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                     |
|                       | 사 교    | 사교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                     |
|                       | 정 치    | 정치 및 직능단체: 미가입 = 0, 가입 = 1    |                     |
|                       | 교 육    | 평생교육 경험: 경험없음 = 0, 경험있음 = 1   |                     |
|                       |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 경험: 경험없음 = 0, 경험있음 = 1 |                     |
|                       | 경 로 당  | 경로당 이용여부: 이용안함 = 0, 이용함 = 1   |                     |
| 독립변수                  | 성 별    | 여성 = 0, 남성 = 1                |                     |
|                       | 연 령    | 만 나이                          |                     |
|                       | 교 육    | 교육년수로 변환                      |                     |
|                       | 거 주 지  | 읍면부 = 0, 동부 = 1               |                     |
|                       |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 총소득) / 가구원수           |                     |
|                       | 용 돈    | 월평균 용돈                        |                     |
|                       | 노후준비   | 아니오 = 0, 예 = 1                |                     |
|                       | 혼인상태   | 무배우 = 0, 유배우 = 1              |                     |
|                       | 세대관계   | 자녀동거 함 = 0, 자녀동거 안함 = 1       |                     |
|                       | 건강상태   | SUM (IADL 10문항)               |                     |
|                       | 최장기 직업 |                               | 전문직 = 고위임원/전문가/준전문가 |
|                       |        |                               | 사무직 = 사무/서비스/판매     |
|                       |        | 생산노무직 = 농어축산업/기계 등 기타         |                     |

1) 사회참여 분야 가운데 종교, 운동, 사교, 정치, 문화 활동의 경우 해당 단체에의 가입 여부로 측정되었으며, 자원봉사, 평생교육의 경우 경험여부로 측정되었다. 또한 경로당활동의 경우 경로당 이용여부로 구성되었으며, 직업활동의 경우 직업의 유무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원자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 3. 분석방법

사회참여 및 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두 단계에 걸친 양적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보통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양한 사회참여 형태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배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참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활동, 여가생활 등 노인의 사회활동은 그 분야에 따라 목적 및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박경숙, 2000; 조추용, 2003)에 의해 유형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참여 노인을 어떤 분야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 노인과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회참여 노인들을 다시 유사한 형태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참여를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한 유형분류를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분석대상들을 상호관련성에 의해 서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군집을 도출하였다<sup>2)</sup>.

다음으로, 사회참여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종류가 항상 2가지(A 또는 B)이므로 승산을 정의할 때 A가 일어날 확률 P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를 대비시킨다. 반면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종류가 항상 3가지 이상이므로(예컨대 A, B, C, D) 승산을 정의할 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특정 사건과 대비시키게 된다. 이 특정 사건을 기준(reference) 사건이라고 하는데 가령, 기준이 D라면 A와 D, B와 D, C와 D를 각각 대비시키는 식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로짓 모델이 구성된다.

$$\ln\left(\frac{P_A}{P_D}\right) = b_0 + b_{A1}X_{A1} + b_{A2}X_{A2} + \cdots + b_{Ak}X_{Ak}$$

2) k-평균 군집분석은 이론에 기반해 연구자가 군집의 개수를 도출하는 것으로, 엄격한 가설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탐색적 수준의 분석이다.

여기서  $D$ 와  $D$ 를 대비시키는 식은  $\ln\left(\frac{P_D}{P_D}\right) = \ln(1) = 0$ 이 되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에  $k$ 개 만큼의 범주가 있다면 위와 같은 로짓모델이  $k-1$ 개 만큼 구성된다(홍세희, 2005). 본 연구의 로짓모델에서는 사회참여집단의 각 유형들이 갖는 특성을 핵심적으로 비참여 집단과의 비교속에서 드러내기 위해 비사회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 군집분석을 통해 발견된 사회참여 군집의 개수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분석 결과

#### 1.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 1)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노인의 여러 가지 사회참여 형태들간의 관계 및 우리나라 노인의 일반적인 사회참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2004년도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①직업, ②종교, ③문화, ④운동, ⑤사교, ⑥정치, ⑦교육, ⑧자원봉사, ⑨경로당 등 모두 9가지 형태의 사회참여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9가지 사회참여 형태에 대해  $k$  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군집별 사회참여 형태의 평균치는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첫 번째 군집에 속하는 사례는 434명이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평균=1.0) 또한 타 군집에 비해 종교, 문화, 운동, 사교, 정치, 교육 등 사회참여의 여러 영역에 걸쳐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군집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다른 영역의 참여도 활발한 군집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집의 경우 높은 종교활동 참여(평균=0.96)율을 보이는 집단이며 총 702명이 이 군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미약한 수준의 직업활동 및 교육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저조한 사회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원봉사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경로당과 같은

일상 사교적 사회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군집의 경우 직업활동에의 참여가 타 군집과 비교해 유독 높은 군집 (평균=0.72)으로서 총 546명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 이외에 사교활동(평균=0.68)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직업과 사교 이외의 다른 사회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로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로당 활동을 제외하면 뚜렷이 주목할 만한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총 1,082명, 즉 전체 사례의 약 35.8%가 이 군집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네 번째 군집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각 군집의 사회참여 양상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각 군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겠다. 먼저, 첫 번째 군집은 전반적으로 타 군집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집단인데, 특히 첫 번째 군집에 속하는 사례는 모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첫 번째 군집은 전반적인 사회참여에 있어 적극적이면서도 특별히 자원봉사활동에 집중되는 '자원봉사중심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집은 종교활동에 집중하며 다른 영역의 사회참여율은 저조한 집단이므로 '종교중심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집은 직업활동 및 사교활동 참여율이 높는데, 특히 타 군집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직업중심형'으로 정의할 수

〈표 2〉 K 평균 군집분석 결과

| 구 분      | 1        | 2          | 3          | 4          |
|----------|----------|------------|------------|------------|
| 직업       | 0.28     | 0.17       | 0.72       | 0.45       |
| 종교       | 0.63     | 0.96       | 0.17       | 0.42       |
| 문화       | 0.03     | 0.01       | 0.02       | 0.00       |
| 운동       | 0.07     | 0.02       | 0.07       | 0.03       |
| 사교       | 0.55     | 0.21       | 0.68       | 0.31       |
| 정치       | 0.08     | 0.01       | 0.03       | 0.01       |
| 교육       | 0.28     | 0.18       | 0.05       | 0.10       |
| 자원봉사     | 1.00     | 0.00       | 0.03       | 0.00       |
| 경로당      | 0.31     | 0.00       | 0.00       | 1.00       |
| N(=2728) | 434(16%) | 754(27.9%) | 550(20.3%) | 969(35.8%) |

&lt;표 3&gt;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구분(비참여형 포함)

| 구분       | 자원봉사중심형  | 종교중심형    | 직업중심형      | 경로당중심형     | 비참여형       |
|----------|----------|----------|------------|------------|------------|
| N(=3278) | 434(13%) | 754(23%) | 550(16.8%) | 969(29.6%) | 571(17.4%) |

있다. 경로당 참여율이 높으면서 가장 다수가 속하기도 하는 마지막 군집의 경우 '경로당중심형'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상 네 가지 사회참여 군집에 비사회참여형을 덧붙여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5개의 군집이 본 연구의 주요 군집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

## 2) 군집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각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lt;표 4&gt; 사회참여 유형별 기술통계 결과

|             |        | 자원봉사<br>중심형 | 종교중심형     | 직업중심형     | 경로당<br>중심형 | 비참여형      |
|-------------|--------|-------------|-----------|-----------|------------|-----------|
| 성 별         | 남      | 211(48.6)   | 163(21.6) | 351(63.8) | 335(34.6)  | 195(34.2) |
|             | 여      | 223(51.4)   | 591(78.4) | 199(36.2) | 634(65.4)  | 376(65.8) |
| 연령(단위:세)    |        | 71          | 73        | 69        | 74         | 76        |
| 가구소득(단위:만원) |        | 103.37      | 77.77     | 96.91     | 69.98      | 76.2      |
| 최장기직업       | 전문직이상  | 115(29.6)   | 89(13.8)  | 129(24.4) | 42(4.6)    | 42(8.5)   |
|             | 사무서비스직 | 97(25.0)    | 145(22.6) | 95(18.0)  | 73(8.0)    | 69(13.9)  |
|             | 생산직    | 176(45.4)   | 409(63.6) | 304(57.6) | 797(87.4)  | 385(77.6) |
| 교육수준        | 무학     | 53(12.2)    | 322(42.7) | 107(19.5) | 530(54.7)  | 299(52.4) |
|             | 초졸     | 165(38.0)   | 258(34.2) | 203(37.0) | 346(35.7)  | 173(30.3) |
|             | 중졸     | 75(17.3)    | 68(9.0)   | 72(13.1)  | 54(5.6)    | 45(7.9)   |
|             | 고졸     | 83(19.1)    | 68(9.0)   | 98(17.9)  | 35(3.6)    | 36(6.3)   |
|             | 전문대졸이상 | 58(13.4)    | 38(5.1)   | 67(12.5)  | 4(0.4)     | 16(2.8)   |
| 지 역         | 동      | 336(77.2)   | 600(79.6) | 403(73.4) | 473(48.8)  | 414(72.5) |
|             | 읍면     | 99(22.8)    | 154(20.4) | 146(26.6) | 496(51.2)  | 157(27.5) |
| 자녀동거        | 동거안함   | 227(59.1)   | 482(63.9) | 358(65.2) | 588(60.7)  | 308(53.9) |
|             | 동거     | 157(40.9)   | 272(36.1) | 191(34.8) | 381(39.3)  | 263(46.1) |
| 삶 의<br>만족도  | 매우만족   | 38(9.0)     | 19(2.7)   | 22(4.1)   | 22(2.4)    | 15(3.6)   |
|             | 만족하는편  | 214(51.0)   | 260(36.4) | 237(44.3) | 363(39.5)  | 107(25.4) |
|             | 그저그렇다  | 109(26.0)   | 252(35.2) | 162(30.3) | 334(36.3)  | 126(29.9) |
|             | 만족않는편  | 48(11.4)    | 135(18.9) | 89(16.6)  | 157(17.1)  | 114(27)   |
|             | 전혀만족안함 | 11(2.6)     | 49(6.8)   | 25(4.7)   | 43(4.7)    | 60(14.2)  |

단위: 명(%)

먼저 성별 분포를 보았을 때 자원봉사중심형은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나머지 네 군집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종교중심형과 경로당중심형 그리고 비참여형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은 비사회참여형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직업중심형이었다. 가구의 평균소득은 자원봉사중심형(평균 103.37만원)이 가장 높고 직업중심형(96.91만원) > 종교중심형(77.77만원) > 비사회참여형(76.2만원) > 경로당중심형(69.98만원)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층(퇴직 이전 최장 종사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 사회참여 유형 모두에서 생산직 종사자가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나 상대적으로 자원봉사중심형과 직업중심형에서 전문직이상의 고위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분포 역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은 자원봉사중심형과 직업중심형을 보여주고 경로당중심형과 비사회참여형의 경우 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비사회참여형의 경우 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더 많이 분포된 반면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도시와 읍·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대등했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의 경우 다섯 유형 모두에서 동거하지 않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유형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사회참여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2.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결정요인 분석

군집분석의 결과 도출된 각 군집에 해당하는 사례수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술통계 결과치가 보여주는 정보로는 그 경중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변수가 노인이 특정한 사회참여 유형을 선택하도록 좌우하는 변인인지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비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사회참여의 네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연령이 낮을수록 비사회참여유형에 비해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의 세 가지 사회참여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 되었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사회참여형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비사회참여형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중심형에 속할 승산(Odds Ratio)은 약 1.5배 높다. 교육년수 변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교육년수가 길수록) 비참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사회참여형보다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혼인상태 변수는 비참여형과 직업중심형을 구분짓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참여형보다 직업중심형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승산은 약 1.6배(1.636) 높다. 노후준비 변수는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노후준비가 있을수록 비사회참여형보다 네 가지 유형의 사회참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 변수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노후준비 변수의 승산 역시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했을 경우 비참여형에 비해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할 승산이 2.855배 증가되며, 종교중심형에 속할 승산이 2.106배, 직업중심형에 속할 승산이 2.034배, 경로당 중심형에 속할 승산이 2.135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 변수는 사회참여 혹은 비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읍면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비사회참여형보다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건강상태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비사회참여형보다 네 유형의 사회참여 가운데 한 가지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개인의 용돈이 적을수록 비사회참여형보다 종교중심형 혹은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참여형에 비해 직업중심형 혹은 경로당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구소득과 노인용돈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종사직종의 경우 생산직에 비해 전문직 이상일수록 비참여형보다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승산=2.142) 경로당중심형보다 비참여형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일수록 비참여형보다 자원봉사중심형(승산=2.113) 및 종교중심형(승산=1.647)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경로당중심형보다 비참여형일 확률이 높았다.

승산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양한 변수 가운데 특히 “노후준비” 변수와 “최장기 종사직종” 변수가 노인의 사회참여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은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사회참여 유형은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사회참여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원봉사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중심형 모두 노후준비여부의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중심형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일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전문직이상의 상위 직업계층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자원봉사중심형 사회참여가 직업계층이 소위 중·상층 정도에 속하는 노인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종교중심형인데, 전문직이상의 종사자와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모두 종교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이상의 고위 직업계층에 속하는 노인층일수록 종교활동은 하는 반면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사회공헌 관련 활동에 소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직업중심형의 경우 남성 노인일수록, 그리고 유배자일 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중심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할 수록 이 유형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노인의 사회참여가 사회인프라의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개별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원,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에 따라 사회참여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표적화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원봉사중심형에 속하는 경우 타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사회참여가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타 영역에서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되는 매개고리 역할을 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정도의 적극성이 기타 영역에서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군집분석이 인과적 구조를 밝히는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명확한 원인-결과 구조를 제시할 수 없지만 자원봉사활동이 노인 사회참여의 귀착점이거나 시발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향후 노인의 적극적

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되어야 할 거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분석의 결과 직업계층이 고위전문직 이상인 경우 자원봉사중심형 사회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위전문직 이상의 경우 타 직업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공헌의 자원을 많이 보유한 계층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때 향후 이러한 직업계층의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표적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분석에서 모든 사회참여 유형에 대해 의미있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후준비” 여부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 또한 주목해야 한다. 비록 본 분석에 포함된 “노후준비” 변수는 경제적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노후준비”가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자인 노인층 가운데 경제적 노후준비를 했다는 것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미리부터 노후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노후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은 노후의 사회참여 활동이 일반적인 취미·여가활동처럼 순간적이거나 일회적으로 기획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적인 노후 생애설계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전국민을 동참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표 5〉 사회참여 유형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비사회참여형 기준)

| 구분             | 자원봉사중심형  |       |        | 종교중심형    |       |        | 직업중심형    |       |        | 경로당중심형   |       |        |
|----------------|----------|-------|--------|----------|-------|--------|----------|-------|--------|----------|-------|--------|
|                | B        | SE    | Exp(B) | B        | SE    | Exp(B) | B        | SE    | Exp(B) | B        | SE    | Exp(B) |
| 연령             | -0.044** | 0.015 | 0.957  | -0.040** | 0.013 | 0.96   | -0.150** | 0.016 | 0.861  | -0.002   | 0.012 | 0.998  |
| 성(준거:여성)남성     | -0.375   | 0.213 | 0.687  | -1.070** | 0.198 | 0.343  | 0.403*   | 0.198 | 1.496  | 0.153    | 0.182 | 1.165  |
| 교육년수           | 0.112**  | 0.023 | 1.119  | 0.016    | 0.021 | 1.016  | 0.016    | 0.022 | 1.016  | -0.056** | 0.020 | 0.946  |
| 혼인상태(준거:무)유    | 0.225    | 0.201 | 1.252  | 0.057    | 0.172 | 1.058  | 0.492*   | 0.193 | 1.636  | 0.022    | 0.167 | 1.022  |
| 노후준비(준거:무)유    | 1.049**  | 0.218 | 2.855  | 0.745**  | 0.209 | 2.106  | 0.710**  | 0.209 | 2.034  | 0.759**  | 0.203 | 2.135  |
| 지역(준거:읍면부)동부   | -0.205   | 0.183 | 0.815  | 0.180    | 0.161 | 1.197  | -0.196   | 0.171 | 0.822  | -1.088** | 0.144 | 0.337  |
| 자녀동거(준거:인합)동거  | 0.027    | 0.183 | 0.973  | 0.082    | 0.164 | 1.086  | 0.077    | 0.173 | 1.080  | -0.040   | 0.158 | 0.961  |
| 건강상태(IADL)     | -0.173** | 0.042 | 0.841  | -0.128** | 0.026 | 0.88   | -0.256** | 0.054 | 0.774  | -0.237** | 0.032 | 0.789  |
| 용돈             | -0.001   | 0.003 | 0.999  | -0.013*  | 0.005 | 0.987  | 0.004    | 0.002 | 1.004  | -0.012*  | 0.005 | 0.989  |
| 가구소득           | 0.003    | 0.002 | 1.003  | 0.002    | 0.001 | 1.002  | 0.004**  | 0.001 | 1.004  | 0.004**  | 0.001 | 1.004  |
| 직종(준거:생산)전문직이상 | 0.321    | 0.283 | 1.379  | 0.762**  | 0.273 | 2.142  | 0.232    | 0.272 | 1.261  | -0.928** | 0.299 | 0.395  |
| 사무·서비스직        | 0.748**  | 0.215 | 2.113  | 0.499**  | 0.192 | 1.647  | 0.406    | 0.213 | 1.500  | -0.476*  | 0.210 | 0.621  |
| 상수             | 3.919**  | 1.167 |        | 4.589**  | 0.978 |        | 12.515** | 1.292 |        | 4.205**  | 0.944 |        |

$\chi^2 = 1182.595, df = 48, N = 2,752$

주: \* p<0.05, \*\* p<0.01

## 참고문헌

- 권 승·황규선 (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69-90.
- 김경혜 (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1): 107-122.
- 김동배·이윤화·안인경 (2004)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107-127.
-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 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미령 (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정석 (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55-77.
- 김주현·한경혜 (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9-224.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예순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Ⅱ)” 《한국노년학》 19(1): 61-81.
- \_\_\_\_\_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3): 621-647.
- 박정은·원영애·최은영 (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주문 (1999) “노인자원봉사조직 참여의 결정요인 - 인천광역시 동구노인자원봉사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2): 245-261.
- 양순미·홍성례·홍숙자 (2004)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4(2): 145-178.
-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 (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윤종주 (1994) “노인의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회》 14(1): 168-178.

- 이경희 (2004) “노인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실태조사 분석” 《노년교육학연구》 10(2): 49-77.
- 이금룡 (2002)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5(2).
- 이인정 (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35-50.
- 이현기 (2001) “고령자 재취업과 지역복지정책적 함의” 《노인복지연구》 11(1): 87-118.
- 정경희 · 오영희 · 석재은 · 도세록 · 김찬우 · 이윤경 · 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 한경혜 · 김정석 · 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2002)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 pp.29-40.
- 조추용 (2003) “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7-34.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Binstock, R. H. & George, L. K. (eds.) (2006)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sixth edition)* Academic Press.
- Estes, L. Carroll, Simon Biggs & Chris Phillipson (2003)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Open University Press.
- Gierveld, J., & Hagestad, G. (2006) “Perspectives on the Integration of Older Men and Women” *Research on Aging* 28(6): 627-637.
- Kim, Jibum, Jeong-han Kang, Min-Ah Lee & Yongmo Lee (2007) “Volunteering Among Older People In Korea,”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1): 69-73.
- Neugarten, Bernice L. (1968)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1. 15 접수 | 2009. 4. 9 채택]

##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Older Persons

*So-Chung Le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oblems an ageing society faces is the role deprivation and social isolation of older persons. In this respect, restoring the roles and social status of older persons by promoting their social participation is considered crucial to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From such viewpoin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from an actor-oriented perspective. To do so, this study classifies various social participatory activities into representative activity types and analyzes the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each activity typ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participatory activities of Korean older person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 volunteer-focused, religion-focused, occupation-focused and kyungrodang-focused social participation. Also, it has been found that the determinants of each social participation types, including the non-participatory type,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ondition of each older person, thus indicating that differentiated policy measure is required to enhance the activities of Korean older persons.

**Keywords :**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social participation types,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